

코트 밖에서 더 주목을 받았던 그녀들

테니스 선수라면 당연히 붉은 땀방울이 녹아있는 코트에서 조명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코트 밖에서 더 주목을 받는 선수들이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뜻하지 않게 코트 밖에서 화제를 모은 선수들을 소개한다.

글_ 백승원 객원기자, 사진_ GettyImagesKorea



타티아나 골로방(프랑스)

2002년 프로 데뷔, 2008년 은퇴, 최고랭킹 12위, 단식 165승 93패
단식 투어 타이틀 2회

1988년생으로 14세 때인 2002년 프로에 데뷔한 골로방은 2004년 와일드카드를 받고 출전한 호주오픈에서 16강에 진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그해 아에곤클래식에서는 처음으로 투어 결승에 올라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후 차근차근 랭킹을 쌓아 올린 그녀는 20세가 채 되기도 전인 2007년 WTA 투어에서 4번의 결승에 올라 이 중 2개 대회에서 타이틀을 획득, 앞으로의 프로 생활을 더욱 기대케 했다.

하지만 2007년 그녀를 돋보이게 한 뉴스는 웬만한 복장 이슈였다. 그녀는 웬만한에서 흰 드레스에 빨간색 속바지를 착용,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이 “당신의 속바지에 대해 질문해도 될까?”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골로방은 그 경기에서 빨간색 속바지를 입기 위해 대회측에 먼저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골로방은 2008년 중반 갑작스럽게 찾아온 부상으로 20세의 나이에 은퇴라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 175cm의 흰칠한 키에 모델 뺨치는 외모 그리고 코트 안팎에서 자신만의 스타일링으로 여러 언론에 주목을 받았다. 은퇴 후에는 2009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수영복 화보에 마리아 키릴렌코(러시아), 다니엘라 한투코바(슬로바키아)와 함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3세이던 2011년 한 인터뷰를 통해 그녀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후 부상으로 갑작스레 투어를 떠나게 될지 몰랐다”면서도 “이제는 테니스 해설 일에 충실하면서 투어 생활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에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그녀는 프랑스 TV에서 테니스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다.



애슐리 해클로드(미국)

2000년 프로 데뷔, 2012년 은퇴,
최고랭킹 39위, 단식 213승 140패
단식 투어 타이틀 0, ITF 타이틀 8회

2008년 프랑스오픈 도중 해클로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 8월 'Playboy' 잡지 커버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집중 관심을 받았다. 그녀는 데뷔 때부터 미모와 균형 잡힌 몸매로 차세대 쿠르니코바라는 수식어가 붙던 선수였다.

하지만 그녀의 Playboy 촬영은 뜬금없는 결정이라기보다 배경을 알 필요가 있다. 그녀는 2008년 3월, 난소 낭종(난소에 물이 차는 증상) 수술 후 회복기를 갖고 있었다. 이 와중에 Playboy 잡지에서 제안을 받고 이를 검토하게 되었던 것이다.

추측건대 여성으로서 민감한 수술을 받은 해클로드는 Playboy를 통해 성적인 어필을 함으로써 자신의 매력이 여전함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을 수도 있다. 그녀는 2007년 7월 미국 수영선수 아만다 비어드의 Playboy 누드 사진 역시 촬영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해클로드는 두 딸, 아들과 함께 가끔 테니스 아카데미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며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다.

안나 쿠르니코바(러시아)

1995년 10월 프로 데뷔, 2007년 공식은퇴, 최고랭킹 8위, 단식 209승 129패
단식 투어 타이틀 0, ITF 타이틀 2회

쿠르니코바는 1997년 16살의 나이로 Wimbledon에 해성과 같이 등장에 4강에 오르며 세계 테니스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녀는 4강에서 엉덩이 근육이 뭉치는 부상 탓에 우승자인 마르티나 힝기스(스위스)에게 3-6 2-6으로 패했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성적뿐만 아니라 요정 같은 외모에도 열광했다.

이후 쿠르니코바는 호주오픈 2회 포함 총 16개의 복식 투어 타이틀을 획득했고 1999년 복식 랭킹 1위에 오를 정도로 복식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단식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기록을 남겼다. 그녀는 2000시즌 후반 단식 세계 8위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2001년부터 잦은 부상과 복귀를 반복하며 결국 커리어 통산 WTA 단식 타이틀은 하나도 획득하지 못한 채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2003년 이후 공식 대회에 나서지 않은 쿠르니코바는 2007년 5월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지만 이미 공백 기간이 길어 선수 시절만큼 그녀의 은퇴 소식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쿠르니코바는 선수 시절이던 2000년, 'Berlei'의 스포츠 브라 메인 모델에 발탁됐으며 그해 짐 캐리와 르네 젤위거가 주연한 영화 'Me, Myself & Irene'에 카메오 출연을 하기도 했다. 또 2002년 FHM(For Him Magazine)이 선정한 '가장 섹시한 운동선수' 1위에 올라 커버 모델이 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04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수영복 모델, 맥심 등의 다양한 잡지 및 TV 출연 등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드러냈다.

그녀는 현재 2001년 뮤직비디오 'Escape' 촬영을 통해 교제한 스페인 가수 엔리케 이 글레시아스와 이란성 쌍둥이 남매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가끔 SNS를 통해 자신의 근황을 전하는 등 평범한 삶을 즐기고 있다.



유지니 부샤르(캐나다)

2009년 프로 데뷔, 현역, 최고랭킹 5위, 단식 236승 183패
단식 투어 타이틀 1회

부샤르는 2013년 WTA 신인상 수상, 2014년 호주오픈과 프랑스오픈에서 4강에 올랐고 2014년 Wimbledon에서 결승에 올라 준우승 등을 차지하는 등 캐나다 여자 테니스의 역사를 새로 쓰며 단숨에 차세대 스타로 떠올랐다.

항상 공식 기자회견 때마다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테니스”라고 밝힌 부샤르는 2014년 캐나다 패션 잡지 'flare' 커버 모델로 등장했고 2015년 US오픈 16강 승리 후 경기장 샤워실에서 미끄러지며 뇌진탕을 겪은 후 세계랭킹이 떨어지면서 테니스 외적인 활동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일러스트레이티드 수영복 화보에서 상의를 탈의한 모습을 선보이는 등 각종 패션 잡지의 빈번한 등장은 더 이상 부샤르에게 낯선 모습이 아니다. 현재 톱100 밖으로 밀린 부샤르는 올해 2월 두바이듀티프리 챔피언십부터 US오픈까지 12연패를 기록하고 있다.👊